

# 출 장 복 명 서

2010. 3. 12

김 기 환 연구자문위원

1. **프로젝트명**: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(1980-2007):  
한국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
2. **여행목적** : 국제경제전문가 면담(Berkeley, Stanford, Columbia, Harvard 대학 등 방문)
3. **여행 동기 및 배경** : 국제 경제전문가 면담을 통해 1980년  
대 이후 세계 경제질서 변화 및 향후  
한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 교환
4. **여행기간** : 2010년 2월 10일 ~ 2010년 2월 28일
5. **여행국** : 미국(뉴욕, 워싱턴, 보스턴, 샌프란시스코 등)
6. **여행자** : 김기환 연구자문위원
7. **주요 면담자(기관)** :
  - Kenneth Rogoff 교수(Harvard Univ.)
  - Dwight Perkins 교수(Harvard Univ.)
  - Robert Fallon 교수(Columbia Univ.)
  - Hugh Patrick 교수(Columbia Univ.)
  - Stephen W. Bosworth 학장(Tufts Univ.)
  - 곽승영 교수(Howard Univ)
  - Walter Mahler(전 IMF Economist)
  - Dr. John T. Bennett (former President of Korea Economic Institute)
  - 한덕수 주미한국대사
  - 권진균 명예교수(Northern Illinois Univ.)

- Barry Eichengreen 교수(Berkeley Univ.)
- Ronald McKinnon 교수(Stanford Univ.)

8. **주요활동성과** : 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본 연구 프로젝트 ‘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(1980-2007):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’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 약 11개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얻게 된 가설 및 아이디어에 대해 학계에 몸담은 세계적인 권위자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경제 정책에 직간접 관여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었음.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계 경제흐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외부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확인하였음

그 결과 얻은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.

-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의 큰 변화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인 적응을 했다고 평가
- 특히 그와 같은 적응은 한국의 사기업 부문에서 두드러짐
- 정부도 대체로 올바른 적응을 했음.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·투자·금융 자유화 및 교육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흐름에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대처했다고 보기는 어려움.
- 따라서 특히 최근 들어 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시급히 경제정책을 개혁하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등의 과제가 많음.

이번 출장 중 세계적인 권위자 및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누는 것은 향후 연구진행에 필요한 외부논평을 갖기 위한 예비적 시도임. 중간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외부논평 및 최종점검을 위한 추가적 의견 교환을 Email 등을 통해 하기로 이들 경제전문가들과 합의했음.